**촬영기초1 기말 과제 시나리오**

**제목: 레디, 액션!**

느낌:성장,

우리의~

(간략하게)

정민재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영화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드는 거엔 자신이 없음.

서동훈은 열정이 넘치나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잘 모름.

최준서는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고, 누구보다 영상에 애정이 넘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예민함.

**S#1. 단체 카톡방**

교수가 조별과제에 대해 설명을 시작한다.

교수: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는 조별과제로 대체합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 단편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조는 제 임의로 배정합니다.

교수가 조 목록을 단톡방에 올린다.

1조-김나연(22), 임성주(22), 강윤서(21)

2조-박예진(22), 황혜준(21), 양건(21)

3조-강유나(21), 최구름(21), 김로지(21)

4조-김미정(20), 김영진(20), 김건호(20)

5조-정민재(22), 서동훈(22), 최준서(19)

6조-김나나(22), 이지은(22), 최열(21)

정민재가 길을 지나가다가 카톡 알림을 받고 핸드폰을 확인한다. 조원 이름을 대충 확인하고 관심 없다는 듯이 다시 걸어간다.

정민재: 아… 진짜 하기 싫다.

서동훈이 길을 걷고 있다. 한참 동안 조원 명단을 들여다본다.

서동훈: (한껏 설레는 목소리로 설레발치며 약간은 호들갑스럽게)

드디어 직접 영화를 찍을 수 있어. 감독이 돼서 나만의 영화를 찍는 거야.

우리 조에는 선배님도 계시네? 선배면 배울 점이 많겠지. 기대된다.

(과방에서 촬영)

최준서는 명단을 보고 팍 짜증난 듯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친구=장비 공로\*

최준서: 아... 나 조별과제 후배들이랑 같은 조 됐는데? 짜증나…

친구: 이번에는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같이 좀 해.

저번에도 너무 깐깐하게 굴다가 결국 네 맘대로 다 해서 애들이 엄청 싫어했잖아.

최준서: 내가 깐깐한 게 아니라 걔네가 할 줄 아는 게 없는거지.

새내기들이랑 같이 하기 싫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서 짜증나.

친구: 또 시작이네… 너도 처음에는 모르는 게 더 많았잖아.

(카톡 소리가 여러 번 울린다)

친구: 뭐야? 알림 좀 꺼.

최준서: (휴대폰을 보고 친구를 쳐다보며) 조별 과제 카톡인 것 같은데? 방금 정해졌는데 벌써 만든다고…? 어후(하며 휴대폰을 본다)

🡪카톡 내용 보여주기

[카톡 내용]

서동훈: 안녕하세요!

저희 만나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 만날까요?

아무도 답장이 없자 서동훈이 날짜를 제안한다.

서동훈: 그러면 내일 2시 어떠세요? 과방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준서와 정민재가 만나자는 서동훈의 말에 동의한다.

최준서: 그래.

정민재: 네 알겠습니다.

서동훈: 네! 내일 뵐게요~~! 같이 좋은 작품 만들어봐요!

이모티콘 여러 개를 보낸다.

최준서: (불만스러운 듯이) 얘 왜 이렇게 나대?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 열정만 많고 할 줄 아는 건 없잖아.

친구: (최준서를 보며 고개를 젓는다)

**S#2. 1차 미팅(과방)**

서동훈이 정각을 10분 앞두고 여유롭게 들어온다.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자리에 앉는다.

정각에 가깝게 정민재가 도착한다. 서동훈이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다.

서동훈: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이 하게 된 서동훈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정민재: 아...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그리고 최준서가 정각으로부터 5분 지나서 들어온다. 들어오며 한숨을 푹푹 내쉰다.

서동훈: (군기 잡힌 상태로 일어서서) 선배 안녕하세요. 서동훈입니다!

정민재: (눈치보다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최준서: 어 그래. 난 최준서야. 그렇게 예의 차릴 건 없고. 너네한테 바라는 건 딱히 없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너네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텐데 괜히 나서지 마.

서동훈: 에? 하지만 이건 조별과제니까 같이 의견 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건 선배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최준서: 네가 실수해서 내 작품 망치면? 그래서 내 학점 망하면? 책임 질 수는 있고?

정민재: (당황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최준서: 나는 할 말 다했으니까 간다?

최준서가 떠난다.

정민재: (눈치보며 짐을 싼다) 저도 가볼게요…

서동훈이 홀로 남는다.

서동훈: (독백)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금방 변하며) 아니야, 벌써 포기하지 말자! 이제 시작이다 서동훈! 최준서가 시키는 거라도 열심히 해서 배워야지!!

최준서로 장면 전환

최준서가 과방 밖으로 나오면서 혼잣말한다.

최준서: 한 명은 열정만 넘치고, 한 명은 관심도 없는 것 같네. 서동훈은 거슬리긴 하지만… 오히려 잘 됐어. 이번에는 내 힘만으로 완벽한 작품을 만들 거야. 누가 도와줄 필요 없어.

**S#3. 장비실/과방**

**\*장비실 불가능하면 장비실 앞 복도에서 촬영\***

최준서가 장비를 대여한다.

장비공로(S#1의 친구): 장비 고장 안 났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아?

최준서: 괜찮겠지. 내가 뭐 하루이틀 빌리냐?

장비공로: (못마땅하게 쳐다본다.)

최준서가 빌려온 장비를 과방에 둔다.

(장비 위에 최준서 촬영 과제 장비 건들지 마시오 써놓기)  
그걸 정민재와 서동훈이 우연히 발견한다.

서동훈이 장비를 본다.

서동훈: 어? 이거 우리 조 꺼 아냐? 근데 이거… 기스 난 것 같은데.

정민재: 그러게? 선배한테 말씀드려. 잘못하면 우리가 배상해야 한다며.

그때 최준서가 과방에 들어온다.

서동훈: 선배! 여기 렌즈에 기스 나 있어요. 어서 장비실에 말하고 바꿔와야...

최준서: 어?

서동훈: 잘못하면 선배가 배상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서 장비실에 가요.

서동훈이 최준서와 함께 장비실에 간다. 장비 공로는 장비를 확인하고 바꿔준다.

장비 공로: 확인 좀 하지 그랬어. 너 서동훈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최준서: 쪽팔리게 왜 그래. (이거 뭐라고 말하지…)

**S#4. 과방**

최준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

최준서: 계속 교수님께 시나리오가 까이네…

이대로 마감 기간에 맞출 수 있을까? 이번에는 잘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쟤네한테 시킬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네…

그때 최준서의 핸드폰으로 장비 대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자가 온다.

최준서는 더 심란해진다.

그때 고민하는 최준서를 본 서동훈이 조용히 다가온다.

서동훈: (자신 없이) 선배, 제가 선배 시나리오를 조금 고쳐봤는데 봐줄 수 있어요?

최준서: 네가 왜 그걸...(못미덥다는 듯)

서동훈: 이렇게 바꾸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고쳐 봤는데.

최준서, 서동훈의 시나리오를 읽는다.

최준서: (티 내지 않으면서) 그래. 이걸로 하자.

자신의 시나리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서동훈의 시나리오로 영상을 찍기로 결정한다.

최준서: (독백)뭐지? 살짝 고쳤는데 갑자기 재밌어졌네... 내가 너무 새내기라고 무시했나?

이제 조금은 믿어줄까…

서동훈의 시나리오로 교수님께 컨펌을 받고,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

(톡으로)

최준서: 교수님 시나리오 수정해봤습니다!   
(파일 전송)

교수님: 갑자기 완전 좋아졌네? 이렇게 잘 할 거면서 왜 그랬어?

최준서: 동훈이가 도와준 덕분에 고칠 수 있었어요.

**S#5 촬영 장면(금잔디광장)**

**최준서: (예전보다 조금은 온화하고 믿어주는 태도로)** 얘들아, 첫 촬영 잘 해보자! 동훈이가 렌즈 좀 껴주고 민재는 배우 어디까지 왔나 확인 좀 해줘.

서동훈: (달라진 모습에 혼자 독백하며 렌즈를 끼운다.)

되게 많이 달라지셨다… 슬슬 우리를 믿어주시나봐. 더 잘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러다 서동훈이 렌즈를 떨어트려 렌즈가 깨진다.

최준서가 그 모습 보며 팍 짜증이 났지만 믿어주기로 다짐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최준서: 진짜 뭐하냐고. 어떡할건데? 네가 다 책임지고 물어내. 내가 너네를 믿어보겠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지. 오늘 촬영은 일단 캔슬이야. 다들 집에 가고 각오 단단히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준서는 계속 신경이 쓰인다.

최준서는 후배들에게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 주기 위해 렌즈 값을 처리하고자 애쓴다.

최준서: 야… 미안하게 됐다. 렌즈를 깨 버렸어... 어떻게든 갚을게. 지금 당장은 다 못 갚겠지만 알바 열심히 해서 갚을게. 미안해… 교수님이나 후배들한테는 말하지 말하주라. 제발 부탁한다.

장비공로: 너 렌즈 깰 애 아니잖아. 누구보다 조심하는 사람이 말이야

정말 네가 깬 거 맞아? 솔직히 말해봐

최준서: 내가 깬 거 맞아. 미안해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

장비공로: (한숨을 내쉰다.)

**렌즈 값을 포털싸이트에 검색해보고 선배한테 혼날 생각을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다음 날 학교**

**S#6 과방**

**서동훈: (눈치를 보며 과방에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최준서: (아무렇지 않게)어 왔어? 마침 잘 왔다.**

**여기 이 부분 섭외된 배우가 사정이 생겼대. 다른 배우 좀 알아봐줘.**

**서동훈: (당황해하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 어제…**

**최준서: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다음 번엔 그러지 마. 나 진짜 화난다. (훈훈하게)**

**정민재:(이 장면을 보며 선배에게 감동을 느낀다)**

**되게 많이 변하셨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제 좀 빠르게 편집하는 장면 배우 섭외하는 장면 등등이 지나감.

1. 배우에게 디렉팅하는 장면 \*배우 없이 진행(필요하면 우리가)\*

정민재: 이렇게~ 해서 되시나요?

2. 촬영하는 장면 (금잔디)

최준서: 3번째 씬 테이크 2 큐~~!!

3.편집하는 장면 (과방)

꾀죄죄한 몰골로 셋이 밤샘편집을 하고 편집실은 과자와 온갖 먹을 것으로 지저분하다.

셋이 편집본을 보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며 환호한다.

우리가 해냈어!!!!!!

**S#7 장비실 앞 복도**

**친구: 이번 과제 되게 잘 찍었더라? 시나리오도 재밌고. 교수님도 칭찬 많이 하시던데?**

**최준서: 어…동훈이랑 민재 둘 다 많이 도와줘서 잘 나온 것 같아**

**친구: 오올~ 어쩐지 니 스타일이 좀 덜 보이더라. 웬일로 후배들이랑 같이 작업했네?**

**최준서: (살짝 쑥스럽게)좀 잘 알려주니까 나름 잘 하더라고**

**친구: (웃으며)진작 좀 그렇게 하지. 아무튼, 난 먼저 간다~**

**최준서는 손을 흔들며 후배들을 처음 만난 장소가 있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다.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서려 있고, 천천히 걸어가는 최준서를 끝으로 나레이션과 함께 영상이 끝난다.**

나레이션: 최준서

이렇게 우리의 짧고도 길었던 촬영이 끝났다. 막상 후배들과 제대로 촬영을 하고 보니, 좋은 팀워크가 좋은 과정과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혼자 해온 것보다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촬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